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16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살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분배를 누리

성경: 사 1:1, 렘 33:2-3, 행 1:14, 2:46, 6:4, 고전 13:4-8 상, 14:4 하, 31

I.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산출물이다—창 2:21-24, 요 19:34, 엠 3:4-5, 5:32.

- A.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다'—엠 5:30-32, 고후 2:10, 골 2:19, 3:10-11, 시 45 편.
- B. 교회는 '부활에 속한다'—창 18:10-15, 21:1-3, 6-7, 민 17:5, 요 11:25, 빌 3:10, 아 2:2, 8-9, 14, 고후 3:5-6, 4:7, 엠 2:6, 3:4, 5:32, 골 2:2-3, 벧전 1:3.
- C. 교회는 하늘에 속한다—엠 1:3, 2:6, 5:27, 고전 15:45-47, 요 3:6, 갈 5:16, 25-26, 6:7-10.

II.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2 편은 교회 생활을 계시하며 시편 133 편은 하나님의 분배를 누리기 위한 교회 생활을 계시한다.

- A. 시편 132 편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일곱 가지 항목들, 곧 하나님과 함께 안식함(시 132:14), 하나님과 함께 거함(시 132:14), 만족을 위한 음식(시 132:15), 영광스러운 의복(시 132:16), 승리의 뿔(시 132:17), 비추는 등(시 132:17), 빛나는 면류관(시 132:18)을 언급한다.
- B. 시편 133 편은 형제들이 하나 안에 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아론의 머리와 그의 옷자락의 끝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을 상징한다. 보배로운 기름은 기름바르며 퍼져나가는 그 영을 상징하며 혈문의 이슬은 그리스도의 내려오며 적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생명의 축복이 명해진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상징한다—비교 엠 4:4-6.

III.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이다—계 2:7, 22:1-2 상, 14, 요 6:35, 57, 7:38-39, 벧후 1:4.

- A.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 번제물이신 당신 안에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당신께 헌신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레 1:2-4, 13, 빌 1:19, 3:3, 8-14, 4:4-7.
- B.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추구가 되는 것이다—고전 2:9-16, 고후 5:14-15, 계 2:7.
- C.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하며 모든 일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골 2:19, 엠 4:15-16.
- D.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이며 새롭게하는 은혜의 공급을 위해 주님을 숨쉬고 먹고 마심으로써 이 은혜가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요 20:22, 6:31, 57, 7:38-39, 엠 3:2, 벧전 4:10-11, 계 2:7, 22:1-2, 14, 사 55:1-2, 6-7.
- E.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받들이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조성되는 것이다—딤후 3:15-16, 딤후 2:15, 마 5:8.
- F.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요 13:34-35, 요일 3:11, 4:8, 고전 13:4-8 상.
- G.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마 16:18, 18:21-35, 엠 4:32, 골 3:13.
- H.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생명 안에서 자람으로써 교회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다—엠 2:21-22, 3:16-19.
- I.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목양받는 것이다—벧전 2:25, 시 23 편.

IV.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이다—고전 3:6-9, 12, 16-17, 빌 1:19-25, 계 21:18-21.

- A. 주님은 섬기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막 10:45, 눅 22:26-27, 12:37.
- B.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부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영이 그분의 부담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마 5:3, 행 22:8, 10.
1.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 있는 기도를 통하여 부담을 받고 부담을 해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눅 1:53, 시 27:4, 사 59:16.
 2. 기도와 일은 분리될 수 없다. 기도가 없으면 일도 없다—골 4:2, 렘 33:2-3, 사 62:6-7, 행 6:4.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그분은 이것이 공표되기를 원하신다. 부담은 오직 구원을 통해서만 해방된다—막 7:29, 히 5:7.
 4.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비록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담이 분명히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막 1:35, 눅 6:12, 시 4:1, 5:1-3, 77:1, 102:1, 116:1, 142:1, 아 2:14.
 5. 신언자들이 받은 계시는 그들이 받은 부담이었다. 부담이 없다면 교회의 건축을 위한 말씀의 사역도 없고 신언도 없다—사 1:1, 2:1, 13:1, 15:1, 슥 12:1, 말 1:1, 행 6:4, 고전 14:3, 4 하, 31.
 6.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부담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된다—고전 2:11-16.
 7.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의 주제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관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말씀을 사역하는 이는 반드시 부담을 가져야 한다—말 2:7.
 8.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짚어지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출 28:29-30.
 9. 교회의 행정과 말씀의 사역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담이 없는 것이다.
 10.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어있고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부담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고 무성하게 될 것이다.
 11. 부담을 갖는 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처리한다. 부담이 있다면 자아는 감소되고 처리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부담이 해방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처리 받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2. 만일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섬기기보다 책임 때문에 섬긴다면 그러한 봉사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잃도록 할 것이다—비교 말 3:14, 신 4:25.
 13. 언제든지 우리의 봉사가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가 될 때 우리의 봉사는 이미 타락한 것이다.
- C.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영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섬기는 것이다—롬 7:6, 빌 3:3, 겔 1:5-14, 행 1:14, 2:46, 4:24, 5:12, 15:25.
1. 우리가 몸을 본 것의 가장 큰 표시는 우리가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 장 1 절에서 바울이 소스테네를 언급한 것은 바울이 몸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협력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우리는 몸 안에서의 우리의 협력을 위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이 필요하며 다른 이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배우는 자의 영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영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다—마 5:3.
 3. 우리들이 서로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과 교통이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큰 형태의 교만이다. 그것은 주님과 몸을 향해 가장 공격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비평할 것이다.
 4.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고 교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평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박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5.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하여 존중하며 협력하고 동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따라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며 다른 이들의 몫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양편의 몫이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몫보다 자신의 몫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겸손해야 한다—빌 2:3-4.

6. 우리는 파쇄되고 다른 이들을 포용하며 다른 이들의 기능을 존중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오직 이런 방식에 의해서만 우리는 몸의 의식을 보존하고 우리 가운데서 건축을 산출할 수 있다.
 7. 우리는 모두 누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공급하고 부족하기 위해 한 헌이 되어야 한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기 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다룬다면 원수도 알고 성도들도 알며 심지어 자녀들도 알게 될 것이다.
 8.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의 말보다 더 높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성도들은 우리의 말이 다른 이들의 말과 조화를 이룬다는 인상을 갖도록 해야 한다.
 9. 어떤 형제가 말할 때 다른 이들은 비평적이거나 그들의 마음 속으로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한다.
 10. 섬기는 이들 가운데서 건축이 부족한 이유는 그들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요 13:34-35, 15:12, 17.
 11. 섬기는 이들 가운데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서로를 향한 그러한 사랑은 주님과 우리의 하나에서 온다.
 12.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몸의 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목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요 21:15-17, 벰전 1:22.
 13.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을 해방하여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함께 섞여질 필요가 있다—마 18:19, 행 1:14, 영한동변 찬송 846 장(한국복음서위 614 장).
- D.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롬 14:17-18.
- E.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의 흐름이 넘쳐 흐르도록 신언하는 생활을 삶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요 4:14 하, 7:38-39, 고전 14:4 하, 26, 엡 3:19.
- F.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다—벰전 5:1-6.
- G.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즐거이 드리는 이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다—고후 9:7.
- V. 교회 안에서 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생명나무이며 감추인 만나이며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을 통하여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교회의 하락을 이기는 것이다—계 4:5, 5:6, 2:7, 17, 3:20-21, 속 3:9-10, 4:6.